

-(으)ㄹ 법하다

그럴 만하다, ~할 법하다

알고 있는 사실로 보아 어떤 일이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같은 법을 쓰는 표현으로 -(으)ㄹ/는 법이다 가 있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법하다	그러다 → 그릴 법해요
받침으로 끝남	-을 법하다	있다 → 있을 법해요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법해요
명사 앞	-(으)ㄹ 법한	있을 법한 이야기
자주 함께 쓰는 말	충분히	충분히 그릴 법해요
의미가 다른 표현	법이다 / 만하다	이치 / 가치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일반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. 만들다 → 만들 법하다.

어떤 일을 '가능성이 높다'가 아니라 그릴 만하다(개연성이 있다)고 평가합니다: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—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충분히나 그릴과 함께 자주 씁니다.

관형형 -(으)ㄹ 법한이 더 흔한 형태입니다: 있을 법한 이야기, 나올 법한 질문.

구별해야 할 비슷한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. 법이다 는 세상의 일반적 인 이치를 말하고, 법하다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. 그리고 형태가 비슷한 -(으)ㄹ 만하다는 '할 가치가 있다'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.
- 2 그 사람이라면 그릴 법해요.
- 3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를 골라 봤어요.
- 4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일이에요.
- 5 집에서도 만들 법한 요리네요.
- 6 화가 날 법도 하죠.

■ 비교

-(으)ㄹ/는 법이다

같은 명사지만 역할은 반대입니다. 법이다는 늘 그렇다는 이치를 단언하고, 법하다는 한 가지 경우를 그릴 만하다고 평가합니다.

실수하는 법이다. (사람은 원래 실수한다) / 실수할 법해요. (그가 실수했을 만하다)

-(으)ㄹ 만하다

형태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. 만하다는 가치나 감내할 만한 정도를, 법하다는 개연성을 평가합니다.

볼 만해요. (볼 가치가 있다) / 있을 법해요. (그릴 수 있다)

-(으)ㄹ 것 같다

것 같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, 법하다는 그릴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. 하나는 예측이고, 하나는 수긍입니다.

비가 올 것 같아요. (비가 올 것으로 예상) / 그릴 법해요. (그릴 수도 있다)

■ 주의

✗ 집에서 만들 법해요.

○ 집에서 만들 법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이 있으므로 더 붙이지 않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만해요도 마찬가지입니다.

✗ 그 영화는 볼 법해요. — '볼 가치가 있다'는 뜻으로 쓴 경우

○ 그 영화는 볼 만해요.

법하다는 가치가 아니라 개연성을 평가합니다. 추천할 때는 만하대를 씁니다.

✗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법하다. — 일반적인 이치로 쓴 경우

○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다.

보편적인 이치를 말할 때는 법이다를 씁니다. 법하다는 그릴 만한 한 가지 경우에 대해 말합니다.